

I. 주간 경제 동향

1. 경제 개관

- 엔/달러 환율의 급변동과 국내 정국 및 노사관계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은 풍부한 외환 유동성을 기초로 하여 안정되고 있음.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콜금리가 20% 이하로 하락하고는 있으나 회사채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3월중 실업 증가 속도가 전월보다는 둔화되어 실업률 6.5%, 실업자 137.8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실업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실업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부문의 고용흡수력도 크게 저하되고 있음

□ 외환 · 금융시장 동향

- (외환시장) 대내외의 경제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수급 사정이 호조를 보이면서 환율은 1,350원대에서 안정
 - 3월 이후 외환시장 공급 우위로 전환: 3월중 외국환 은행의 외환매수 173.2억 달러, 매도 170.9억 달러
 - 환율변동폭 축소 추세: 일일 환율변동폭의 월평균치가 97년 12월 136.8원 → 98년 1월 77.1원 → 2월 36.3원 → 3월 36.9원으로 축소
 - 외환거래 규모 축소: 97년 4/4분기 1,448억 달러에서 98년 1/4분기 1,034억 달러로 28.6% 감소. 환차손 방지를 위해 수출네고자금이 외국환은행으로 유입되지 않고, 거주자외화예금을 거쳐 직접 수입대전으로 결제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반영
 - 외환보유고 급증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 4월 17일 현재 가용 외환보유고가 303억 1천만 달러에 달해 6월 목표치 300억 달러를 조기 달성하였음. 이는 외환위기 발생 이전인 97년 8월말(297억4천만 달러)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임
 - 대외적 안정 요인: 인도네시아 사태의 진정 기미, 중국 인민폐 절하 가능성 축소, 일본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엔화 가치 회복 기대 등이 원화 환율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자금시장) 외환시장과는 달리 자금시장은 불안해져 회사채수익률이 상승
 - 콜금리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0% 이하로 진입하였음. 97년말 31.3%까지 올랐던 콜금리가 1월말 27.2% → 2월말 24.7% → 3월말 22.1%로 단계적으로 하락하다가 4월 24일부터 20% 이하로 진입
 - 그럼에도 회사채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하였음. 이는 은행들이 회사채 매입이나 일반 대출을 기피하고 있고, 한은이 RP를 통해 자금을 확대 운용하면서 은행자금이 콜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RP금리 및 콜금리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민간부문의 자금 경색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대기업도 자금사정이 한계에 달하기 시작함
 - 고금리 부담: 회사채는 18%대이지만, 대기업의 운영자금인 할인어음, 당좌차월 등은 25%대를 유지
 - 자금 조달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 인상: 회사채 발행 수수료 인상(0.3~0.4% → 1.5%), 회사채 지급보증 수수료율 인상(0.5% → 2.0%), 환가료 인상
 - ‘고금리 및 대출 상환 압력 → 기업채무구조 악화 → 신용도 저하 → 자금조달 사정 악화’의 악순환

- 외국인 채권 투자 급감
 - 97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의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규모는 모두 6조 6천억 원(44억 1천만 달러)으로 월평균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으나, 4월에 들어서는 4월 10일까지 208억 원에 그쳤음
 - 외국인 채권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불신: 통안증권 등 특수채를 위주로 초단기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음. 즉 아직도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높다고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회피하고 있음
 - 외국인의 98년 채권순매수는 4월 20일까지 3조 7백억 원에 달했으며 이중 특수채가 2조 7천억 원(90.4%), 국채 및 지방채 1천 5백억 원(5.1%), 회사채 1천3백억 원(4.4%) 등이었고 회사채의 경우 보증채가 80% 가량을 차지함
 - 이처럼 외국인투자자들은 잔존기간이 15일 이내인 채권만 매입하는 등 초단기로 채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실업 현황

- 실업이 점차 구조적인 문제로 변화되고 있음

- 실업률 증가 추세: 3월 실업률 6.5%, 실업자 137만 8천 명. 정부와 IMF 합의치인 6%, 130만 명을 넘어섰음
-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망실업 및 유보실업의 증가
- 구직을 단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버리는 실망실업자 증가(경제활동비율이 감소: 남자 75.2%, 여자 46.8%, 97년 3월의 경우 각각 75.6%, 49.3%)
- 3월중 무급휴직 또는 일시휴직자가 15만 명 증가. 무급가족종사자 19만 명 증가

- 서비스 부문의 고용흡수력 크게 감소, 귀농 인구 증가

- 76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서비스취업자가 1/4분기중 약 2% 넘게 감소
-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년 미만 1개월 이상)가 많이 고용되어 있던 도소매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경기 위축으로, 임시근로자수가 1월 2.3%, 2월 2.0% 증가에서 3월에는 0.4% 감소로 전환
- 건설업 취업자 감소율이 1월 -6.1%, 2월 -10.0%, 3월 -14.3%로 확대. 일용직 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도 1월 -12.4%, 2월 -12.9%, 3월 -10.7%로 크게 감소
- 농림어업의 고용증가 현상: 귀농현상으로 농림어업분야의 취업자가 97년 3월에 비해 18만 명(8.8%) 증가

- 신규실업자의 실업률 증가 및 轉職실업자 비중 증가

- 3월 이후 전직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 90% 이상을 차지
- 그러나, 20대 신규실업률도 11.3%(97년 3월 6.3%)에 달하고 있어 젊은층의 장기 실업이 사회문제화할 가능성이 높음

□ 주간 경제 지표

- 원/달러 환율 : 1,300원대에서 안정세

엔화 환율 안정세가 이어지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외환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으로써 환율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4월 30일 현재 1,338.2원 기록

- 주가 : 외국인 매수 감소로 하락세

외국인들의 매수가 급감하고 선물시장에서의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의

일환으로 현물 매도가 급증함으로써,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한때 400 포인트 선이 무너지기도 하였음. 4월 29일 현재 종합주가지수 417.05 포인트 기록

- 금리 : 회사채 수익률, 하락세 반전

구조조정 지원, 노사 불안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8%대로 재진입한 금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IMF와의 단계적 금리 인하 합의, 한은의 지속적인 규제금리 인하로 다시 소폭 하락세로 반전함. 4월 29일 현재 회사채 수익률 18.11% 기록

- 엔/달러 환율 : 상승세 지속

美 聯準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보도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게다가 4월 25일 발표된 일본 경기부양책의 시행안에 항구적인 감세 조치 등이 포함되지 않아 엔화 약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4월 29일 현재 132.38엔 기록

< 國內 經濟 指標 >

		97년	98.1월	2월	3월	4월 29일	98년 전망치 (기간 평균)	최근 추세	원 인	
실 물 지 표	무역 수지 (통관기준, 억불)	-84.5	14.5	47.2	84.0	-	280	흑자 지속	수출 증가, 수입 급감	
	경상 수지 (억불)	-86.2	30.6	69.9	106.9	-	256	흑자 지속	무역수지 흑자 무역외수지 흑자	
	물 가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6.6	8.3	9.5	9.0	-	9.2	급등 추세	환율 안정 국제원자재가 하락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비,%)	10.9	15.2	17.7	17.5	-	16.2	완화	
	실업률(%) (월별 계절조정)		3.1	4.1	4.7	5.3	-	6.0	급등	부도 급증, 감원 확산
금 융 지 표	환 율	₩/\$	1,415.2	1,688.8	1,640.1	1,387.0	1338.2 (30일)	1,400	하락	경상수지 흑자, 외평채 발행
		¥/\$	130.57	126.95	126.08	131.90	132.38	134	상승	美 금리 인상설, 부양책 미흡
	금 리 (%)	RP 금리	35.0	29.0	24.2	24.0	19.14	-	하락	IMF와 단계적 금리 인하 합의
		회사채수익률	28.98	18.50	20.50	18.28	18.11	17.5		
		CP 수익률	35.00	21.00	24.50	22.20	19.60	-		
		당좌대출금리	35.01	28.15	25.98	24.58	-	-		
	종합주가지수		376.31	567.38	558.95	481.04	417.05	550	하락	외국인 매도세
외환보유고 (억불)		204.1 (88.7)	235.2 (123.6)	267.2 (185.4)	297.5 (241.5)	-	510 (400)	증가	경상수지 흑자, 외평채 발행	

주: 1) 환율, 금리, 종합주가지수, 외환보유고는 기말 기준

2) 무역수지는 연간 누적 수치임

3) 외환보유고의 ()는 가용외환보유고(외환보유고-해외점포 예치금)를 나타냄

(전 병 유 bycheon@hri.co.kr ☎724-4011)